

보도시점 (인터넷) 2023. 6. 20.(화) 10:00, 배포 2023. 6. 19.(월) 15:00
(지면) 2023. 6. 20.(화) 석간

탄녹위-한국은행,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녹색금융 역할 모색

- 6.20(화)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서울),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 '탄소중립 대전환시대 녹색금융의 역할: First Korea로 가는길'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한국은행(이창용 총재)은 6월 20일(화)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서울)에서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3.6.20(화) 09:30~16:50 /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서울)

-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한국은행 포털

■ 주 제: 탄소중립 대전환시대 녹색금융의 역할: First Korea로 가는길

■ 참 석: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300여명

-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4월 수립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성장동력 확충,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및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금융지원 강화 흐름에 맞춰 모험자본의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친환경산업으로의 투자유도를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서 기후위기를 신산업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기후테크육성, 금융과 탄소배출시장의 연계 방안, 기후스타트업 지원방안, 탄소중립의 약한고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우리 환경에 특화된 녹색금융지원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

※ 컨퍼런스 개최사, 환영사, 축사메세지 주요 내용은 <참고 1>, 세션별 주요 내용은 <참고 2> 참조

[프로그램]

개회식			
09:30~09:50	개회사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환영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영상축사	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기조연설			
09:50~10:05	“한국형 녹색금융 추진방향”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세션 ①) “동아시아 녹색금융시장 선도를 위한 우리 환경과 비전”			
10:10~11:50	발표1	“녹색금융인프라 조성: 홍콩 디지털 녹색금융시장” (Bénédicte Nolens 국제결제은행(BIS) 이노베이션허브 센터장)	
	발표2	“한국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최인진 보스턴컨설팅(BCG) 대표파트너)	
	토론	(좌장)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패널)	Hong-Thuy Paterson GCF CFO 김원재 모건스탠리 기업금융부문장, 임대웅 UNEP FI 한국법인대표
11:50~13:10	점심식사		
13:10~13:20	특별세션: “녹색금융시장 활성화 조건” (Eric Usher UNEP FI 의장 (영상))		
(세션 ②) “기후테크, 미래투자와 녹색금융지원방안”			
13:20~14:20	세션 ②-1 “대형 탄소중립 프로젝트 자금유치방안”		
	토론	(좌장)	최호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장
		(패널)	김형근 SK E&S CFO, 이희범 두산에너지빌리티 상무, 한승수 노스랜드파워 대표, 정해민 IMM PE이사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실장
14:20~15:30	세션 ②-2 “기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발표	“SMEs 녹색금융 접근성 제고방안” (유인식 기업은행 ESG팀장)	
	토론	(좌장)	황소영 신한금융지주 ESG기획팀 부장
		(패널)	김용민 인사이트벤처스 대표파트너 신용녀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박지웅 율촌 변호사, 이인홍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15:30~15:40	휴식시간		
(세션 ③) “新녹색금융시장: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가능성”			
15:40~16:50	발표1	“탄소배출권시장의 활성화 과제” (강동관 블룸버그 NEF 한국일본 리서치센터장)	
	발표2	“자발적탄소시장 사업 및 해외진출” (이동혁 하나금융 글로벌마켓운용실장)	
	토론	(좌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패널)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최석원 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김재향 한국거래소 상무, 이승원 기재부 미래전략국장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에너지경제조정국 신산업팀	책임자	팀 장	최윤석	(044-200-1965)
		담당자	사무관	여동구	(044-200-1966)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지속가능성장연구팀)	책임자	팀 장	송길성	(02-750-6854)
		담당자	조사역	송병헌	(02-750-6823)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탄탄한 제조업과 발전된 IT기술, K-택소노미 도입,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 녹색금융의 발전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이제 녹색금융은 산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과 금융을 주도하는 ‘리딩(Leading)’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영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그 이유는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고, 글로벌 환경규제로 수출이 크게 제약된다는 점, 그럼에도 기후변화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은행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외화자산의 ESG 투자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녹색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경제가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변화 완화(climate mitigation) 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익프로젝트의 구축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과 프로젝트 기간 간 만기불일치, 비즈니스 환경의 격차 등 여러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컨퍼런스는 ① '동아시아 녹색금융시장 선도를 위한 우리 환경과 비전' ② '기후테크, 미래투자과 녹색금융지원방안', ③ '新녹색금융시장: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가능성'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 세션 ①에서는 우리 녹색금융의 전반적인 환경을 조망하였다. 특히,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는 홍콩 디지털 녹색금융상품 개발 사례, 대출·투자·인프라 측면에서 Net Zero 달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Change Agent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우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한계, 강점 등을 토론했다.

○ 세션 ②는 대형 탄소중립 프로젝트 성공과 기후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소세션에서는 SMR, 수소, 해상풍력, CCUS 등 신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과제, 대형 인프라 사업유치 성공 사례(인천 액화수소 터미널·신안군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제비교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소세션에서는 기후분야 스타트업의 유니콘 성장 여건, 중소기업의 데이터갭 완화, 중소기업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한 녹색금융 접근성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세션 ③은 기존의 배출권거래시장을 바라보는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투자시장으로서의 탄소배출권시장의 의미와 성장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국내 규제탄소배출권시장(CCM)내 시장조성자 및 투자주체로서 금융기관의 역할, 향후 자발적 탄소감축시장(VCM)의 발전 가능성과 해외진출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